

류영희·강다희 첫 모녀전~3~13일 아하 갤러리



류영희 작 '바라보다'



강다희 작 '행복을 담다'



강다희 작 '행복을 담다'

'母展女展'...동화 속 행복을 담다

어떤 그림은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 이의 행복한 마음이 여실히 녹아 있어서다. 행복한 사람만이 그 느낌을 다른 이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류영희(여·85)·강다희(여·48)씨 모녀(母女)의 작품이 그랬다. 작은 팸플릿을 여는 순간 작품에 담긴 행복감이 가슴 속을 파고들었다.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두 모녀의 작품은 작은 팸플릿 안에서 또 하나의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어머니 류씨의 은은한 작품이 소박하고 따뜻한 느낌이라면 딸 강씨의 작품은 짙은 색들이 만들어내는 조화와 조형미가 인상적이다. 칠 남매를 키워낸 어머니는 세월을 거슬러 소박한 소녀가 돼 있었고, 강인한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은 어느새 더 큰 어른이 되어버린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

팔순 노모와 중년을 훌쩍 뛰어 넘은 딸이 처음으로 함께 여는 전시가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동구 금남로 3가 아하(AHHA) 갤러리에서 열린다.

“엄마와 딸, 동화속 행복을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류씨가 종이 위에 색연필과 수채물감, 마커펜 등으로 그린 작품 15점과 강씨의 유화 작품 15점이 전시된다.

두 모녀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좋아했던 그림을 뒤늦게 시작했다는 것과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

일본어를 전공한 강씨도 우연한 기회에 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19년전 한·일 미술교류전을 통역했던 그는 일본 작가 다카하시 마사루에게 화구를 선물 받았다. 다카하시 마사루가 몇 해째 자신의 통역을 전담했던 강씨에게 “그림을 보

려는 항상 마음 속으로 “내일은 또 새로운 오늘이다”를 되뇌인다.

“남에게는 자랑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그림을 그린다는 것이 마냥 행복해요. 항상 좋은 생각만 하고 그림을 그리죠. 주로 도감이나 사진을 보고 따라 그리는 정도인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산책로를 돌면서 내 마음을 달랠 뒤에 다시 색연필을 들어요.”(류영희)

딸은 류씨의 든든한 후원자다. 딸이 사다주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은 류씨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이번 전시도 딸이 어머니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다. 두 모녀의 사연을 들은 아하 갤러리 최명진 목사가 큰 도움을 줬다.

“엄마와 함께 같은 일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좋아요. 제 가슴 속에서 엄마와의 시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엄마가 나이가 있으셔서 물감이나 펜으로 그림을 그리기 힘들지만 색연필로 그린 작품을 보면 저도 놀라곤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어린아이 같으신 모습도 좋지요.”(강다희)

문의 070-4135-0826.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13년전 떠난 남편 그리다 딸 권유로 시작한 85세 엄마 통역하던 딸, 日 작가 화구 선물에 19년전 그림 그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초등학교(국민학교) 시절 곤잘 그림을 흉내내 그렸던 류씨는 13년 전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기 위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좀처럼 아픔을 주체하지 못했던 어머니가 못내 안타까워보였던 강씨가 스케치북과 색연필 등을 선물하면서부터다.

“아저씨(남편)가 가지고 서글팠죠.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 눈물이 나면 그림을 그렸어요. 아직까지는 아저씨 얼굴을 한 번도 그리지않았는데 이제는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류영희)

는 눈이 있는 것 같다”며 그림 도구를 선물했던 것이다. 그때부터 강씨는 판화작가 박구환씨와 김종일 전 전남대 교수에게 본격적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함께 사는 두 사람 사이에는 작품만큼이나 행복한 이야기가 많다. 둘에게는 잘 그리고, 못 그리는 것이 크게 의미 없다. ‘완벽’과 ‘완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행복에 젖어 그림을 그리기 때문이다. 작품을 그릴 때면 둘은 예쁜 동화 속을 거니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든다. 매일, 매일이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즐겁다. 모

달동네 나영이
서울살이



전남대 사범대 음악교육학과 7일 뮤지컬 공연

전남대 사범대 음악교육학과(학과장 오지향)는 지난 2006년부터 정기 음악 축제에서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을 무대에 올려왔다. 지금까지 ‘지킬 앤 하이드’, ‘헤어스프레이’, ‘그리스’, ‘맘마미아’ 등을 공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특히 재학생들이 출연하는 것은 물론, 연출, 음향, 무대 등 스태프로도 참여해 함께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오는 7일 오후 7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3호관 예향홀에서 열리는 올해 정기음악축제에서는 창작 뮤지컬 ‘빨래’가 공연된다. 지난 2005년 초연된 ‘빨래’는 서울 소극장 무대를 중심으로 9년 간 35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히트작이다.

작품은 서울 달동네로 이사온 27살

나영이 빨래를 널러간 옥상에서 이웃집 몽골 청년 솔통고를 만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희망을 찾아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이번 무대는 150분 본 공연을 60분 내외로 각색해 재구성했으며 ‘서울살이 몇헨가요’, ‘빨래’, ‘비오는 날이면’ 등 12곡의 뮤지컬 넘버를 만날 수 있다.

그밖에 베르디의 ‘나부코’ 중 ‘대장간의 합창’, ‘행복한 산책’ 등을 합창곡으로 들려주며 피아노 듀오곡인 베네티의 ‘두대의 피아노를 위한 4개의 조곡’, 드링의 ‘플루트, 오보에,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피리·대금 등이 함께 어우러진 ‘취타’도 만날 수 있다.

전석 무료.
/김마은기자 mekim@kwangju.co.kr

유쾌한 줄만 알았더니...

최석운전 31일까지 해와문화예술공간

유쾌하다. 웃음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작품에는 정신없이 돌아가는 세상사가 담겨 있고, 우리의 삶이 녹아 있다.

유머러스한 작품을 통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작가 최석운씨의 전시가 오는 31일까지 해와문화예술공간에서 열린다. 주제는 ‘유쾌하거나, 혹은 서글프거나’다.

최씨의 작품은 매우 평범한 것 같지만 독특한 재미를 지니고 있다.

그는 ‘김여사의 일요일’ ‘춤추는 남자’ ‘싸우는 두 사람’ 등 작품 제목처럼 일상적인 내용을 그려왔다. 하지만 결코 밋밋하지 않은 흥미로운 작품들이 관람객의 흥미를 끈다.

그의 작품에는 단순히 재미와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상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림 안에 작가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예리한 풍자가 들어 있다. 그래서 작품을 보는 이로 하여금 입가에 웃음을 짓게 하지만 결국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다른 시선으로



'바닷가에서'

그린 작품의 세계로 들어가 “허허” 웃을 수 있는 전시다.

경기도 양평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최씨는 부산대 예술대학과 홍익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샌티아고, 아라리오갤러리, 인사아트센터, 포스코 미술관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지난 2011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로 활동하기도 했다. 문의 062-233-9011.

/김경인기자 kki@

광주비엔날레재단 비대위 구성 본격화

광주비엔날레재단이 1일 오전 ‘광주비엔날레재단 비상대책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해 지역 여론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연균(원로작가), 김선정(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예술감독), 김양근(변호사), 김종남(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 이기훈(문화도시협의회 상

임이사), 최규철(광주예총 회장), 최영태(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최현(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장), 한규영(이노션 상무이사)씨 등 9명의 지역 문화 및 시민사회 관계자와 정동재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 등 재단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는 지난달 18일 제136차 이사회 때 의

결된 광주비엔날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광주비엔날레 조직 및 경영 효율화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준비위 참석자들은 향후 구성될 비대위는 20주년을 맞은 광주비엔날레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지역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세계적

브랜드로 키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지역과의 소통 부재와 지역 인재 육성 미흡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인선의 중요성과 의견 수렴 과정의 투명성 등이 강조됐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15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되며, 2014광주비엔날레 폐막 직후인 11월 10일부터 내년 5월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외관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특허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 3. 트라이슈머 마감코팅 시공 →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달린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